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방법

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씩!

① 단문일수록 독자가 이해하기 쉽다.

② 짧은 문장일수록 읽는 맛, 리듬감이 살아난다.

③ 문법적으로 틀릴 일이 없다.

쉬운 표현으로 쓰자

① 쉬워야 좋은 글이다. 글의 주인은 독자이고 독자는 쉬운 글을 원한다.
그러므로 단어도 말하려는 논지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

② 구어체로 쉽게 쓰자. 말과 글은 다르다고 생각하니 단어가 딱딱해진다.
친구에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듯 써야 한다.

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쓰자

① 좋은 글은 팩트(fact)다. 불명확한 글, 결론이 없는 글은 독자를 짜증나게 만든다.
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글은 독자에게 여운을 준다.

② 구체적일수록 그럴듯하다. 독자는 '너무 예쁘다'가 아니라 예쁜 이유를 원한다.
세밀한 전달을 위해 자주 동원해야 하는 것이 '숫자'다.

문장쓰기 기초 연습

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씩!

(1) 긴 문장은 나누어 쓰고, 접속사로 연결하자

다음 문장을 짧게 나누고, 문장과 문장을 올바르게 연결해봅시다.

예시 문장 → 창모와 성빈이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음악 공부를 해서 /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, / 몇 년째 같은 반이기 때문에 부모님끼리도 잘 아신다.

모범 답안 → 창모와 성빈이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음악 공부를 해왔다.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. 심지어 창모와 성빈이는 몇 년째 같은 반이기 때문에 부모님끼리도 서로 잘 아신다.

1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더니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그걸 살펴보다 보니 3시간이 훌쩍 가버렸다.

2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출발해야 하는 스케줄이어서 상훈이와 정환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야 했는데 기차역에 도착하니 이미 기차가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.

정답은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하세요!